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

진도 해상 물살 빨라 선박 전복사고 등 잇따라

작년 해난사고 14건

진도 앞 바다는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인가.

진도 해상에서 지난해 사고로 당한 선박은 모두 14척. 이 사고로 선원 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진도군 지산면 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40t급 일반 화물선 '제1가거호'(선장 정항규·53)가 전복돼 선원 4명이 실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에는 항해 중인 시에라리온 선적 화물선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선원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해난 사고다.

진도 해상에서 해난사고가 잦은 것은 통계에 그대로 나타난다. 단순 수치로 볼 때 목포해경 관할수역 중 해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신안군. 지난해 37건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실종 또는 사망했다.

그러나 수역의 면적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진도군의 수역은 2천160km. 신안군 관할 수역 1



만2천134km의 5분의 1에도 못미친다. 수심이 20~30m에 불과, 거칠기로 소문난 영광 칠산바다도 사고 비율은 진도의 30% 수준도 안 된다.

진도 해상에서는 왜 사고가 잦을까. 우선 빠른 유속이다. 진도 앞바다의 유속은 시속 3~4노트(5.4~7.2km)로 서남해안의 다른 해역(평균 2~3노트, 3.6~5.4km)보다 빠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겨울철엔 강한 북서풍이 자주 불고 파고가 높기로 유명하다. 진도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실종자들의 시신을 절반 이상 수습하지 못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진도 해상을 경유하는 화물선이

▲버뮤다(Bermuda) 삼각지대=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버뮤다, 푸에르토리코를 잇는 3각형 모양의 바다. 북위(北緯) 20도에서 40도까지, 서경(西經) 55도에서 85도에 이르는 400만 km의 면적을 차지한다. 20세기 중 이곳에선 8천건의 조난 신호와 50척 이상의 배와 20대 이상의 비행기가 사라졌다.

많은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중국이나 서해안의 항구에서 출항한 배가 부산항이나 울산항 등 남·동해로 가기 위해서는 진도 앞바다를 꼭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진도 해상에서 사고나면 빠른 유속으로 인해 실종자를 찾기 어렵다"며 "적정량 이상의 화물을 싣고 항해를 할 경우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 중심을 잃어 전복하는 사고가 많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ish@



월동배추 수확

18일 해남군 산이면 덕오리 배추단지에서 겨울배추를 수확하는 농촌 아낙네들의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배추 산지 출하가격은 한 포기 당 150원으로 지난 해 가을 250원 보다 큰 폭으로 떨어져 농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폭증... 건설사 줄부도...

광주가 투기과열지구라고?

정부의 주먹구구식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지방 주택시장은 물론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부르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 미분양물량 급증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건에 해당됨에도 '11 부동산대책'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게 돼 "지방 건설경기를 죽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전역이 지난 200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이후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및 미분양물량 적체 심화 등으로 인해 지역 주택시장이 침체일로로 걸고 있다.

광주는 특히 올해 미분양 아파트가 9천여가구를 넘어선 데다 2003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여개의 건설업체가 문을 닫는 등 부동산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자진 폐업하거나 휴업, 광주를 떠난 업

체까지 감안할 경우 지역 건설경기 침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게 건설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불러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에 해당됨에도 정부가 수년째 미적거리는 바람에 각종 부동산정책의 규제 대상 지역에 올라 지역 경제 침체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는 지난해 집값이 3.2% (18.9%), 경기(24.8%) 등과 대조적 인 모습을 보였다.

광주는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중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와도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해 남구의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곤 대부분 청약경쟁률이 2대1 수준에도 못미치는 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1년새 6천가구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투기지역인 광산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광산구는 지난 2005년 6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에 묶여 신규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협회와 주택건설협회 등은 물론 광주시와 광산구 등 지자체까지 합세해 지구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광주시의 경우 지구 해제

건의를 위해 빠르면 이달 내로 주택가격 및 물가상승률 추이 등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교육적책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지방 5대 광역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마당에 광주만 제외될 경우 타 지역의 투기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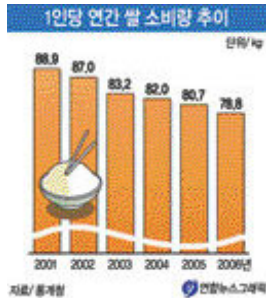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하루 밥 두공기도 안먹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78.8kg

쌀 소비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한 가마니(8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6 양곡연도(2005.11~2006.10)의 가구부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8.8kg으로 전년의 80.7kg보다 1.9kg(2.4%) 감소했다.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전년대보다 5.2g(2.4%) 감소한 216.0g으로 떨어져 하루 2공기(1공기 120~130g)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쌀 관세화면 21만명 실직”

노회찬의원, 한미FTA 협상중단 촉구

쌀까지 관세화 대상에 포함시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쌀 농가에서 최대 21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관세화 대상에 쌀을 포함시킬 경우 쌀 농가의 대부분인 21만3천700여명이 실직하고 쌀을 제외하더라도 쌀 생산 농민의 2만7000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한, “야채와 과일과 같은 1차 생산물 분야에서도 최대 15만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망은 다른 제조업 분야의 실직자 피해에 비해서도 훨씬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동특기자 tuim@kwangju.co.kr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집중중!
http://marathon.kwangju.co.kr | 전화: (062)220-0541

후원기관: 57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4차로 달리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ALL LASH MASCARA

LANEIGE